



(11)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

"5·18 직후 대한해협 횡단...금남로 환영인파 뜻잊어"

50년동안 물에서 살았다. 수영장에만 머물지 않고 바닷길도 수 차례 열었다. 수영 선수 출신 가운데 그만큼 오랜동안 물과 싸워온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래서 일까. 물은 아직도 낯설기만 하다.

한국 수영의 전성기를 이끈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55). 그는 고향인 해남에 내려와 있었다. 택시라인 해남을 학동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계곡면 여시골에 수영래인 딸린 아담한 집을 짓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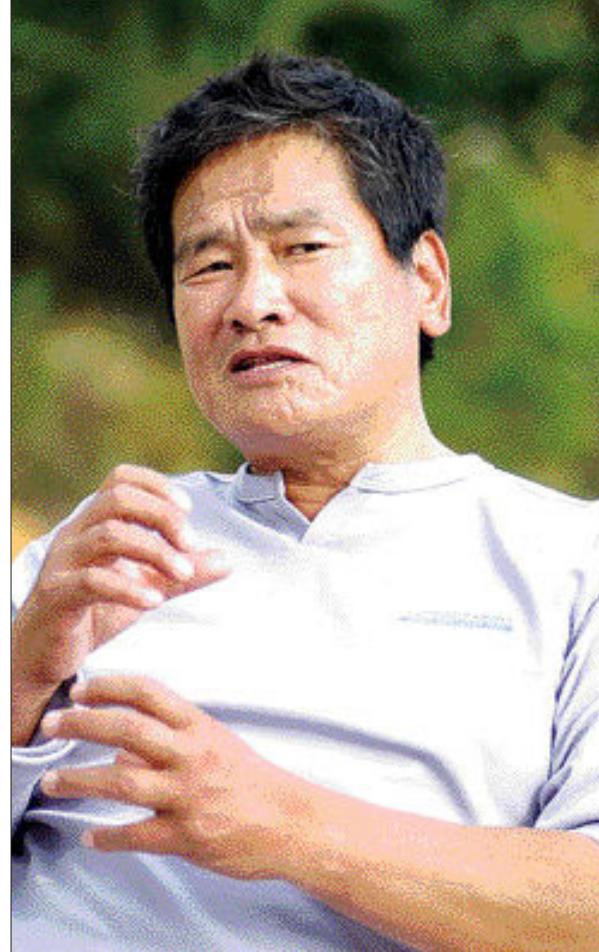
"키가 크면 그림자도 길다고 하죠. 운동하느라 못 본 책도 좀 읽고 공부도 하면서 살아온 길을 정리해보려고 해요. 후배들이 저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죠."

까무잡잡한 피부에 탄력있는 근육은 현역 선수 못지 않았다. 국가대표 수영선수에 이어 바다를 무대로 원영(遠泳)을 개척하며 제2의 인생을 일궈온 덕분일 것이다.

그는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400m와 1천500m에서 한국스포츠 사상 첫 아시안게임 2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수영 대부분 종목에서 통산 50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우고 1978년 은퇴했다.

한국스포츠 사상 첫 AG 2관왕

현역 활동 중 통산 50개 한국新



1980년 8월 23일 불굴의 인내와 의지로 사상 처음 대한해협을 도영(渡泳)한 조오련씨가 광주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금남로에서 커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이날 환영행사는 광주일보의 전신인 전남일보와 전일방송이 마련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청계천 부근 간판집과 창고지기로 일하면서 종로 2가의 YMCA 실내수영장을 다니며 실력을 쌓았다. 이듬해 6월 29일 전국체전 서울시 예선에 수영복조차 없이 '사각팬티'를 입은 채 자유형 400m와 1천500m에 참가, 당시 장거리 1인 자들을 제치고 두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 마침 당시 귀빈석에서 관람중이던 민관식 대한체육회장은 그의 사정을 듣고 태릉선수촌에 입촌시켜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는 보람듯이 개인 훈영 200m 한국신기록을 깐 것을 시작으로 수영계를 평정하며 기대에 부응했다.

69년 사각팬티 입고 출전...첫 한국新**민관식 체육회장이 발탁, 태릉 입촌****약력**

- ▲ 1952년 해남읍 학동 출생. 양정고·고려대
- ▲ 1970년 방콕아시안게임 수영 한국 첫 2관왕
- ▲ 1974년 태헤란아시안게임 수영 2관왕 2연패
- ▲ 대한·도버해협, 울릉도~독도 횡단, 한강 종영
- ▲ 대한수영연맹 상임이사, 올림픽위원회 위원
- ▲ 대한민국체육상, 체육훈장 청룡장

여주며 그는 "다시는 수영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에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회상했다. 한 때 암구정동에 '조오련 수영교실'을 운영하기도 했다. 그를 다시 끌어온 것은 2000년 연예인과 함께 대한해협을 건너자는 모방송국의 제안이었다. "주변의 설득에 못이겨 16년만에 본격적인 수영에 나섰는데 1시간 가량 해보니 어깨가 괜찮더라고요"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가정의 5남녀 중 막내였던 그가 '일곱살때부터 해남 방죽에서 익힌 혜엄실력으로' 수영선수가 되기까지는 곡절도 많았다. "심부름하려 제주도에 갔다가 하계체전 예선전을 지켜봤는데 1등이 저보다 낫지 않더라구요. 해남고에 다니다 '전국대회에서 3등 정도만 하면 공짜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에 1968년 12월 완행열차를 타고 무작정 상경했죠"

사업 확장과 함께 커져가던 꿈은 1984년 해남에 내려오던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물거품이 되 버렸다. 오른쪽 어깨에 복합골절상을 입은 것이다. 지금도 선명하게 남은 상처를 보

■ 전라도 역사 이야기

- 청암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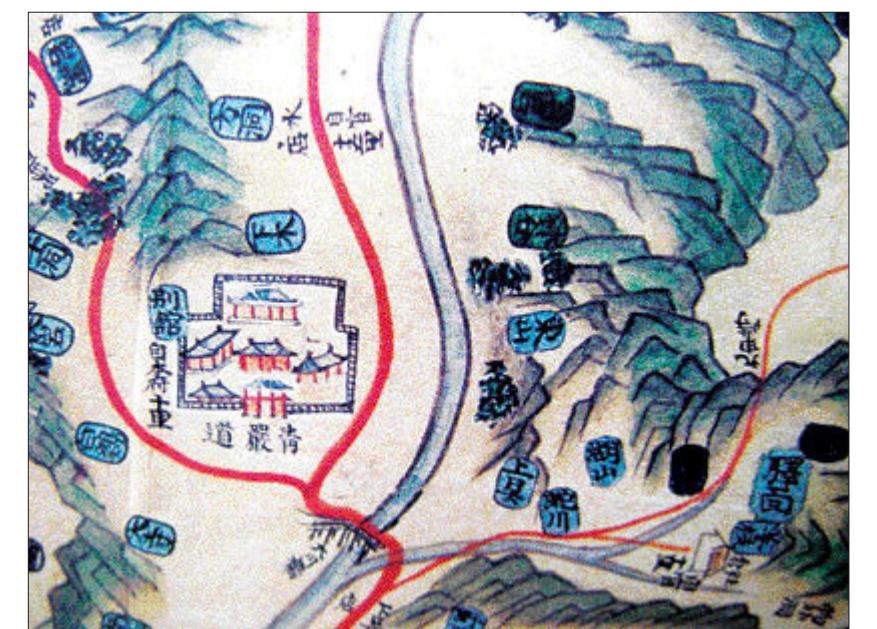
조선시대 '濟州路' 길목 터미널**11개역 관할...驛吏 무려 527명**

나들이를 하다보면 '역률(촌)'이란 지명이 많다. 나주와 장성에는 청암역이 있었다. 조선시대 한성 중심 9대 간선도로 중 제7로인 '제주로(濟州路)' 길목의 터미널이었다. 나주시 청동에는 칠방(察訪)이 다스리는 청암역도(靑岩驛道)가 설치되었고, 그 관할에 속하는 단암(丹岩)역은 장성댐 아래 있었다.

17세기 말 칠방역도는 장성으로 옮겨지며, 역할이 바뀌게 된다. 즉 단암역이 승격되어 청암역도를 맡고, 나주 역도는 보통역이 된다. 당시 나주목이 세 차례나 금성현으로 강등되면서 역장도 위상이 달라진 듯 하다.

장성은 갈재와 입암산성이 있어 요충지로 꼽힐만한 곳이었다. 19세기 장성부 지도를 보면 단암역에 청암도(靑嚴道)란 표기와 함께 여섯 체의 건물이 그려져 있다. 강 건너편 우지촌에는 역면(驛面)과 사장(社倉)도 표기되어 있다.

이밖에도 별관(別館)을 비롯 방동, 하목, 우동, 복암, 백계, 대암, 남양, 중흥, 신흥, 동산, 상오, 사천, 호산, 애운마을이 관할로 꽤 있다. 역관아를 중심으로 역에 속한 역리와 역줄 및 노비들이 살던 마을로 추정된다.



1872년 제작된 장성부 지도에 표기된 청암도(靑嚴道).

1895년 폐쇄 직전 서(徐)찰방이 만든 청암역지에는 동현(사방4간)을 비롯, 내동현, 자첨, 공·창고, 형발청, 서자첨, 금장청, 사령청, 하관청, 내삼문, 진청루가 있었다. 이 역 관할 11개 역에는 역리 527명을 비롯하여 역노비 87명, 역전답 585결, 공수답 63결, 부장전 111결, 급주전 25결, 보인수 792명, 역줄 396명, 상등마 17필, 중등마, 28필, 하등마 29필 등이 있었다.

역터는 용강리 일대로 장성댐 휴게소 자리다. 한말 장성군수로 부임했던 초정(草亭) 김성규(金星圭·1863~1936)가 60번지 역사(驛舍)에 살았다. 그는 충북 은성에서 태어나 서울 장동에서 성장한 뒤, 관리가 되어 원황릉으로 들어왔다. 이후 용강마을 건너 동산동으로 옮겨 정을 지었다.

댐 설치 전 살았던 주민들의 재보에 따르면 낫풀과 1번 국도를 따라 삼촌, 중촌(모갈), 하촌(귀고리)에 걸쳐 1백호가 넘는 큰 동네였다. 신흥리로 가는 삼거리통이 128번지에는 이발소와 주막, 겸비위제로 가는 길 180번지에는 국민학교가 있었다. 김성규 집은 솔을 대문이었고, 본체 내동현은 한국전쟁 때 소실되고, 'ㄷ'자 형인 행랑체에서는 이정욱이 살았다.

장성 상오마을 행암가든에 '청암'이란 표지석과 성산리 동산 앞에 강일철 칠방선 정비가 서 있다. 나주 청암역에는 우물가에 돌구유와 함께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두 곳 주위에 다시 나그네들이 모인다. 길은 옛나지이나 지름길을 택한다. 더 늦기 전에 자료를 구해 역촌박물관을 만들어 봄직하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

수능시험 끝!! 이젠 중국어 시작!!

수능생 특별반
12월 1일 개강

1월	2월	3월
2월	3월	4월
3월	4월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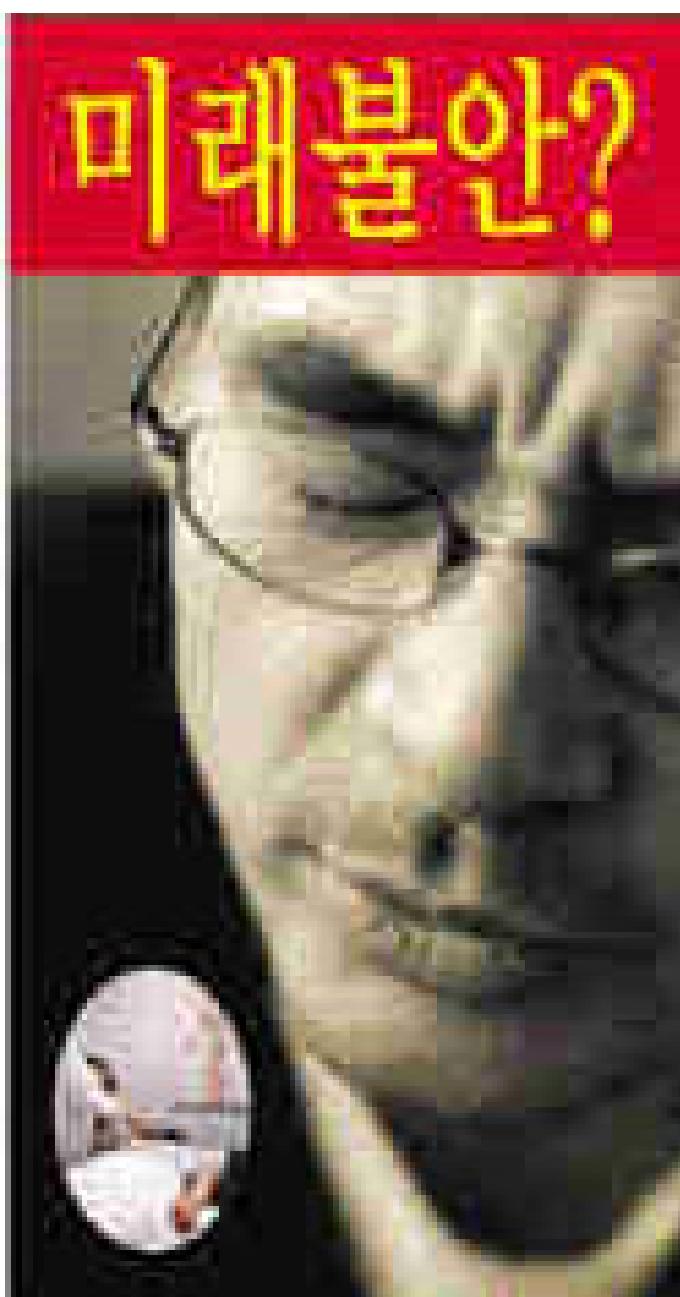
3개월이면 중국어 된다.
12월 1일 개강

1월	2월	3월
2월	3월	4월
3월	4월	5월

리틀자이나

中國語 學院

02-33-9582



**한의사가 되시면
해결됩니다!**

고수형민 대학생, 특원인 등
**사우스 베이
한의과 대학**

www.southbay.co.kr